

마태복음 13장 31-32절 말씀

31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

천국은

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

겨자씨 한 알 같으니

32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

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

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

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

33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

천국은

마치 여자가 가루 서 말 속에 갖다 넣어

전부 부풀게 한

누룩과 같으니라

마태복음 13장 34-35절 말씀

34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

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

비유가 아니면 아무 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

35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

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

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